

# '평창은 나의 무대' 빙상 스타들 '구슬땀'

### 쇼트트랙 심석희·최민정·스피드스케이팅 이상화·피겨 차준환 등 종합순위 4위 목표 달성 위해

365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빙판 위 스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방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태극전사들의 각오도 남다르다. 한국은 평창올림픽에서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금 6개·은 6개·동 2개)를 넘어 서겠다는 계산이다. 메달 20개를 획득해 종합 4위 목표다.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빙상 종목의 스타들의 선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세계 최정상급으로 군림한 한국 쇼트트랙 '쌍두마차' 심석희(20·한국체대), 최민정(19·서원고)과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를 노리는 이상화(28·스포츠타트),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강자 이승훈(29·대한항공)과 김보름(24·강원도청), 4회전 점프를 장착하고 평창 기대주로 급부상한 피겨 남자 싱글의 차준환(16·휘문중)은 국민들에게 환희를 안겨줄 메달 기대주로 꼽힌다.

◇한국의 '메달밭' 쇼트트랙...심석희·최민정 '발겨줘'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효자종목' 노릇을 해왔다.

한국이 역대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 53개 가운데 42개를 쇼트트랙에서 일궈냈다. 금메달 26개 중 21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에서는 여자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된다. '쌍두마차' 심석희와 최민정이 버티고 있다.

2014소치동계올림픽에서 금 1개(3000m 계주), 은 1개(여자 1500m), 동 1개(여자 1000m)를 따낸 심석희는 소치올림픽 이후 주춤했다. 2015~2016시즌 막판인 지난해 1월 원 발 부상으로 시즌을 일찌감치 접었다.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서는 여제의 면모를 과시 중이다.

심석희는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잇따라 2관왕에 등극했다. 4개 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쓸어들었고, 여자 대표팀의 4개 대회 연속 3000m 계주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한다면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되는 최민정은 지난해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물론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최민정도 심석희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1~4차 대회 2관왕에 올랐다. 1, 3차 월드컵 대회에서 1000m 금메달을, 2차 대회에서 1500m 금메달을 수확했다. 4차 대회에서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시에 3000m 계주 금메달을 합작했다.

심석희와 최민정이 버티는 여자 대표팀은 올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한 번도 3000m

계주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남자 대표팀은 여자 대표팀과 비교해 '강국의 면모'를 많이 잃은 모양새지만, '반향' 이정수(28·고양시청)가 월드컵 3, 4차 대회 1500m 금메달을 따며 부활 기대를 키우고 있다.

◇500m 3연패 도전 이상화·이승훈·김보름 '우리도 있소'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금메달 3개를 안긴 스피드스케이팅 태극전사들은 평창올림픽에서도 일을 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단연 관심은 '빙속 여제' 이상화다. 밴쿠버올림픽과 소치올림픽에서 여자 500m 금메달을 딴 이상화는 평창올림픽에서 3연패 도전에 나선다.

이상화가 평창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역대 두 번째로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3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여자 500m 3연패를 달성한 것은 1988년 캘거리대회부터 내리 3회 연속 우승한 보니 블레이크(미국) 뿐이다.

2012~2013시즌부터 여자 단거리 최강자로 군림한 이상화가 2013년 세운 여자 500m 세계기록(36초36)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소치올림픽 이후인 2014~2015시즌에도 월드컵 시리즈에서 6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최강자의 면모를 이어갔다. 이상화는 2015~2016시즌 고질적인 부상을 안고 있는 무릎 부상 보호 차원에서 월드컵 대회에 4차례만 출전했지만, 세계랭킹 4위로 시즌을 마치며 건재함을 뽐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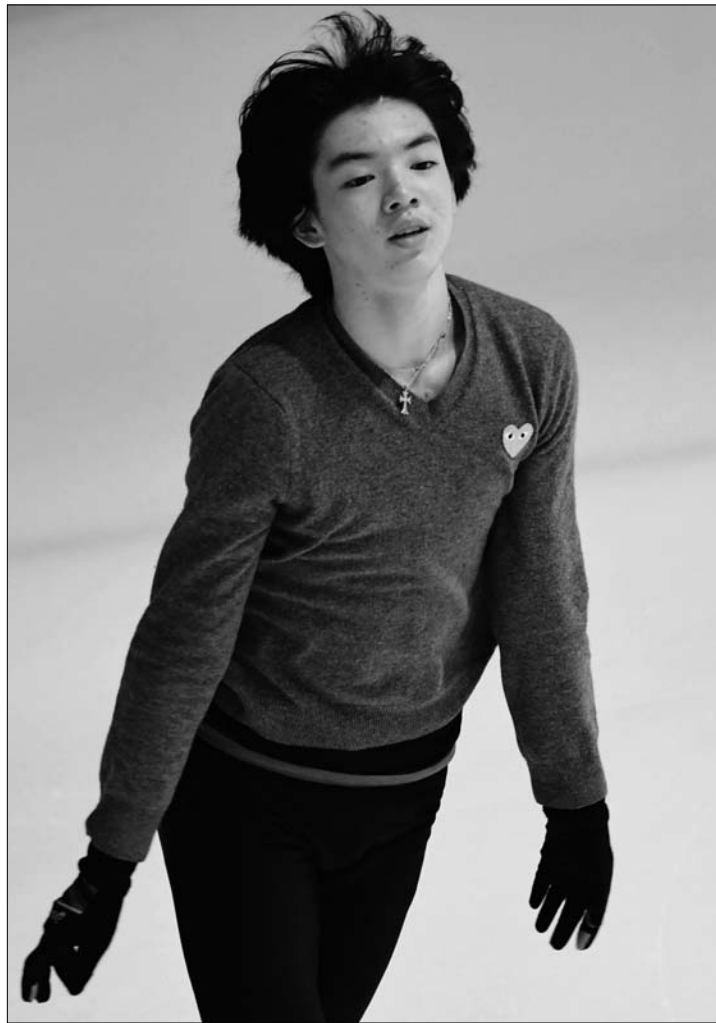
2016~2017시즌 이상화는 다소 주춤했다.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기는 했지만 월드컵 1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서 6위에 그쳤고, 4차 대회에서도 9위에 머물렀다.

이상화는 이달 9~12일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와 이어 개최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정상을 확인하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상화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대회들이다.

쇼트트랙 선수 출신인 이승훈과 김보름은 정해진 라인 없이 출전 선수들이 한꺼번에 출발해 16바퀴를 돌아 순위를 결정하는 매스스타트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이승훈은 지난해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 월드컵 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 피겨 기대주로 급부상한 차준환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싱글 금메달을, 2014년 소치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피겨여왕' 김연아(27)가 소치올림픽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 한국 피겨에는



김연아가 은퇴한 이후 한국 피겨 기대주로 급부상한 차준환

뒤를 이을 걸출한 스타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다.

평창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체면을 살려줄 재목이 등장하지 않아 속앓이를 하던 한국 피겨에 기대주가 등장했다. 4회전 점프를 장착하는 등 2015년부터 기량이 급성장한 모습을 보인 차준환이다.

2015년 3월부터 김연아·하뉴·유즈루(일본)를 세계 최정상급 스타로 키워낸 브라더인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은 차준환은 트리플 악셀을 넘어 쿼드러플 살코 장착까지 성공했다.

실전에서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쿼드러플 살코를 가다듬은 차준환은 이 점프를 앞세워 주니어 무대를 평정했다.

2016~2017시즌 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일군 차준환은 주니

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획득,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입상에 성공했다.

물론 아직 시니어 무대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겨뤄보지 않은 상황이다. 차준환이 시니어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또 다른 4회전 점프를 장착해야하고, 표현력 부분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차준환은 쿼드러플 살코 외에 쿼드러플 토프루프를 장착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차준환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성공률은 20% 정도.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이후에는 표현력을 키우는데도 한층 집중했다는 것이 차준환의 설명이다.

올 시즌을 마치고도 가파른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평창올림픽에서도 메달까지 노릴 수 있다는 평가다.

/김민근기자



국대 은퇴한 배드민턴 이용대, 요넥스 입단식 참석

국내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이용대(29·요넥스)는 지난해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난 뒤 불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던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한다는 사실에 배드민턴계는 깜짝 놀랐다. "나도 선배들의 도움으로 일찍 올림픽 금메달을 땀으니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것이 이용대가 밝힌 은퇴의 반이다.

어찌됐든 이용대는 대표팀을 떠났다. 자연스레 13년 가까이 지속했던 태릉선수촌 생활도 마침표를 찍었다.

7일 오전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요넥스 입단식에 참석한 이용대는 태릉선수촌을 떠난 뒤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 "새벽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설명했다.

이용대는 "과거에는 새벽 5시40분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좋다"고 웃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 취재진과 대화를 주고받던 이용대는 하태권 요넥스 감독의 한마디에 화들짝 놀랐다.

"이용대가 팀에 오면서 선수들도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다. 약간 부족하지만 목표를 우상으로 잡고 훈련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겠다"던 하 감독은 "훈련량이 부족하면 새벽 운동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힘들었어도 진땀 나게 땀을 흘렸지만 태릉선수촌 생활은 이용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다.

이용대는 "배드민턴 생활이 그리워진다. 그곳에서 몸 관리도 했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선수들과 항상 노력했다.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삿포로 동계AG 한국 선수단, 아파호텔사용안한다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숙소 내에 극우 서적을 배치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파(APA)호텔'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는 19~20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제8회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의 숙소가 일본 삿포로 프린스호텔로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6일 오후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선수단의 숙소를 기존 아파호텔에서 프린스 호텔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당초 한국 선수단은 '아파호텔 마코마이 호텔 & 리조트'를 숙소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호텔 객실에 아파호텔 최고 경영자 모토야 도시오가 쓴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극우성향 책이 비치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체육회는 지난달 조직위에 유선으로 선수단 숙소 객실에 비치된 문제의 서적을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조직위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서적을 대회 기간 옮기겠다고 회신했다.

체육회는 나아가 지난달 31일 조직위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선수단 숙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조직위는 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4개 종목(빙상·컬링·스키·바이애슬론) 170여명의 한국 선수단은 대회 기간 동안 프린스 호텔에서 묵는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